

PACKAGING NEWS



협회 · 회원사

- (사)한국포장협회 제271차 이사회 개최
-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 회의 가져
- (사)한국포장협회 터키 화상상담회 진행
- (사)한국포장협회 FITI · KOTITI 등과 시험분석 업무협약 체결
- SKC 대상 · LX인터내셔널과 친환경 생분해 신소재 합작사 설립
- 대상그룹 창립 65주년 맞아 CI 교체
- 동원시스템즈 '2021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용 셀 파우치 제조분야 진출
- 코오롱인더스트리 美 오리진과 100% 바이오 플라스틱 양산
- 롯데알미늄 2021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사례 공모 결과 발표

업계

- 잉크업계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
- 환경부 강남구 일대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시기 · 품목 구체화
- 프라스틱연합회 제10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행사 성료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제1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 성료
- 한국포장기술사회 장안대학교 융복합패키징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 SK이노베이션 2021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 개최
- SK케미칼 세계 최초 케미칼 리사이클 코폴리에스터 양산 본격화
- SK케미칼 화성시-경기도주식회사와 PET병 자원순환 협약 체결



(사)한국포장협회

제271차 이사회 개최

2022년 추진 사업 논의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11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7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2차 정기총회 개최,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 ▲Eurasia Pack 2021 참가 결과보고, ▲시험기관 협약 진행 건, ▲러시아 화상상담회 진행 보고, ▲2022년 해외전시회 협회관 신청, ▲기타사항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내년 2월에는 제32차 정기총회, 12월에는 창립 3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KOTITI, FITI 등의 시험기관과 협약을 맺고 러시아 화상상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포장협회가 포장업계의 구심점이 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회원사들이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한국포장협회 제271차 이사회 결과 보고

- | | |
|---|---|
| <p>1. 제32차 정기총회 개최의 건
- 2022년 2월 25일(금) 16:00 TheK호텔
- 코로나19 상황 지켜보면서 1월 이사회에서 구체 방안 논의</p> <p>2.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의 건
- 2022년 12월 7일 진행
- 세부내용 정리 1월 이사회 결정</p> <p>3. Eurasia Pack 2021 참가 결과보고
- 전시회 규모, 한국관 참가내용 및 상담내용 보고</p> <p>4. 시험기관 협약 진행 건
- KOTITI, FITI와 협약 진행해 회원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
- 세부 협약내용 회원사에 발송</p> <p>5. 러시아 화상상담회 진행 보고
- 국내 13개사, 러시아 10개사 상담 준비 중
- 12월 1~2주에 진행</p> | <p>6. 2022년 해외전시회 협회관 신청의 건
- 러소팩(6. 7~10) 러시아 모스크바
- 유라시아팩(10. 12~15) 터키 이스탄불
- 오스팩(5. 17~20) 호주 멜버른
- 기타 유망 전시 발굴</p> <p>7. 기타사항
가. 실태조사
- 11월~12월 실태조사 실시
- 2022년 1월 조사 결과 회원사 보고</p> <p>나. 화상회의실 이용
- 협회가 구축한 화상회의실 적극 이용 및 홍보</p> <p>다. 이사진 보완
- 2022년 1월 이사회에서 확정</p> <p>라. 지역 모임 활성화
- 지역장 중심으로 모임 진행
- 지역의 비회원사 발굴 및 회원 가입 유도</p> |
|---|---|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11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7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한국포장협회

FITI · KOTITI 등과 시험분석 업무협약 체결

회원사에 20% 할인을 적용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12월 6일 FITI시험연구원 회의실에서 (재)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과 시험분석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장재 시험분석 및 품질평가 시험업무, ▲포장재 성능평가 관련 기술 자문 및 공동 발전 방향 모색, ▲포장재에 대한 연구용역 및 R&D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포장협회 회원사에게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분석 수수료를 20% 할인 제공해 인증기관에 의뢰하는 시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는 (사)KOTITI시험연구원과도 관련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이다.

한국포장협회 관계자는 “식품의 기구용기·포장, 포장재질구평가 및 포장재 신뢰성 시험평가와 관련한 회원사의 원활한 시험·검사 업무를 위해 여러 시험연구원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회원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잉크분과위원회 회의 가져

정보 교류 및 협력 확대

(사)한국포장협회 산하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신정열)가 지난 11월 19일 협회 화상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사간 정보교류 강화와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잉크 원부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원부자재 확보도 어려워지면서 잉크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사간 협력과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잉크분과는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긴밀하고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존공생을 모색하기로 했다.



▲ (사)한국포장협회 산하 잉크분과위원회(위원장 신정열)가 지난 11월 19일 협회 화상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사)한국포장협회**터키 화상상담회 진행**

한국시장에 관심 높은 터키 기업과 상담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11월 9일 협회 사무국에서 한국시장에 관심이 높은 터키 기업들과 화상상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화상상담회에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포장 관련기업 3개사와 터키 바이어 3개사가 3회에 걸쳐 상담을 했다.

협회는 바이어 100개사를 1차 선정한 후 2차로 진성바이어 40개사를 선택, 회원사와 상담회를 진행할 3개사를 최종 선정해 화상상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사)한국포장협회와 바이어사와의 상담회도 진행, 국내 포장산업 현황을 전달하고 터키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제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가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포장기술과 포장제조사들을 터키 포장시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시장 공략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향후에도 러시아, 터키 등의 화상상담회를 진행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도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11월 9일 협회 사무국에서 터키 기업들과 화상상담회를 진행했다.



회원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디어스엠
2005년 12월 1일 16주년

[주]명지피앤피
1986년 12월 6일 35주년

삼일포장산업(주)
1996년 12월 5일 25주년

세창화학(주)
1977년 12월 20일 44주년

[주]영진하이텍
1971년 12월 1일 50주년

팩플러스(주)
2004년 12월 15일 17주년

[주]한국알미늄
2008년 12월 24일 13주년

한국포장기술연구소
1972년 12월 15일 49주년

SKC

대상 · LX인터내셔널과 친환경 생분해 신소재 합작사 설립

목재펄프 활용 나노셀룰로스로 강도 높은 PBAT

SKC(대표이사 이완재)가 대상(대표이사 임정배), LX인터내셔널(대표이사 윤춘성)과 함께 친환경 신소재 고강도 PBAT(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사업을 본격화하고 ESG경영에 힘을 모은다. SKC는 지난해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고강도 PBAT 기술을 도입해 양산 기술 개발 등 사업화를 준비해왔다.

SKC는 11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대상, LX인터내셔널과 설립하는 합작사에 기술가치 790억 원을 포함해 총 1,04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4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LX인터내셔널은 22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360억 원 출자를 결정했다.

합작사는 2023년 사업화를 목표로 국내에 연산 7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세운다. 사업화를 시작하면 합작사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메이저 PBAT 제조사가 된다.

3사는 플라스틱 이슈 해결을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저변 확대에 힘을 모은다. SKC는 고강도 PBAT 양산



기술과 운영 노하우, 연구개발 역량을 제공한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은 발효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향후 PBAT 주요 원료(BDO·Butanediol)를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로 공급해 친환경성을 높이고, LX인터내셔널은 60년 이상 쌓아온 해외 마케팅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품 판로를 지원한다.

생분해 소재 시장은 최근 유럽 중심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폐플라스틱 이슈 확산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약 25만 톤 규모였던 글로벌 PBAT시장은 2025년 약 50만 톤으로 성장한다. 특히 최근 중국, 미국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SKC는 잠재수요가 2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PBAT의 단점을 개량한 고강도 PBAT는 성장성이 더욱 크다. 기존 PBAT는 단기간에 땅속에서 100% 분해되지만 잘 찢어져 용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고강도 PBAT는 나무로부터 추출한 나노셀룰로스를 보강재로 활용해 일반 플라스틱 수준의 강도를 갖는다. 이에 빨대, 비닐봉투, 농업용 멀칭필름 등 1회용품 난분해성 플라스틱의 대체소재로 고객사 기대가 크다. SKC는 20여 곳의 고객사와 테스트 및 상업 적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SKC는 농협경제지주, 함양농협, 일신화학과 함께 농업용 생분해 멀칭필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C가 고강도 PBAT 소재를 제공하고 일신화학이 생분해 멀칭필름을 만들어 함양군 양파 재배단지에 공급하는 구조다. 농작물 재배 토양을 덮는 멀칭필름은 경작 후 수거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활용하면 환경문제는 물론 인력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SKC는 고강도 PBAT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 사업도 확장한다. SKC는 고강도 PBAT를 친환경 생분해 라이멕스(LIMEX)에도 적용한다. 생분해 라이멕스는 플라스틱에 돌가루(석회석)를 혼합해 만든 일반 라이멕스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플라스틱 대신 PBAT 등 생분해 소재를 적용해 친환경성을 한층 높였다. SKC는 9월 일본 TBM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2023년 양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그룹

창립 65주년 맞아 CI 교체

제품 포장재 등 순차 적용

대상그룹이 창립 65주년을 맞아 미래 비전과 혁신 의지를 담은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이번 신규 CI 도입을 통해 향후 100년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신규 CI에 지난 65년간 지켜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이라는 핵심 가치를 고수하면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사람과 자연 모두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새로운 CI의 심벌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은 나무를 형상화한 형태로, 대상 사업의 근간이 되는 ‘자연’을 기반으로 탄생한 제품과 서비스가 다시 인간과 자연을 풍요롭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상



▲ CI의 각 알파벳에는 대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상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담겨 있다.

징한다.

영문 사명 'DAESANG'의 각 알파벳을 둥근 형태의 소문자로 표현해 고객 및 미래와의 연결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나타냈으며,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다채로운 색상과 친근한 서체를 사용해 고객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CI의 각 알파벳에는 대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대상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룹의 존재 이유, 앞으로의 지향점, 설립자의 경영철학을 이어가는 사회적 책임, 새롭게 요구되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인재상, 강화된 고객중심경영 기준 등 총 7가지가 대상의 새로운 DNA이다.

대상은 이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비전 달성과 함께 회사의

성장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상그룹은 새 CI를 그룹사 홈페이지와 제품 포장재 등에 순차 적용해 고객과 접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CI와 새로운 기업 비전을 알리는 광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성수 대상홀딩스 대표이사는 “지난 65주년을 발판 삼아 100년을 이끄는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CI를 새롭게 교체하게 됐다”며 “사람과 자연 모두 건강한 세상을 위해 기여한다는 기업 철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대에 발맞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동원시스템즈

‘2021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펫푸드용 포장재와 장기 보관용 레토르트 파우치 수출액 연간 750억 원 기록

동원그룹의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대표 조점근)가 기능성 연포장재 부문에서 ‘2021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11월 22일 밝혔다.

동원시스템즈는 11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21 세계일류상품 인증 수여식’에서 이번 인증을 수여 받았다.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세계일류상품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01년 도입한 평가제도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 제품의 브랜드 인증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향후 7년 안에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품목에 수여되는 인증 자격이다. 매년 기준 조건을



▲ 최우영 동원F&B 식품부부장(우)과 송중선 동원시스템즈 해외사업부부장(좌)이 11월 18일 '2021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펫푸드용 포장재와 장기 보관용 레토르트 파우치의 수출 실적에 힘입어 이번 기능성 연포장재 부문 인증을 수여받았다. 동원시스템즈의 기능성 연포장재는 제품의 장기보관을 위해 여러 겹으로 쌓은 다층 구조의 포장재 필름으로 만들어 외부 차단성과 보존성이 뛰어나다.

한편 동원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동원F&B도 프리미엄 캔햄 브랜드인 '리챔'의 해외 수출 실적에 힘입어 이번 돈육통조림 부문 인증을 수여받았다.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용 셀 파우치 제조분야 진출

충북 진천에 생산 공장동 준공 예정

동원시스템즈(대표이사 조점근)가 2차전지용 셀 파우치(Cell pouch) 제조 분야에 진출해 최첨단종합소재기업으로서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다고 11월 19일 밝혔다.

동원시스템즈는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사 공장단지 내에 2차전지용 셀 파우치 생산 공장동을 내년 하반기 준



공 예정이다.

동원시스템즈는 19일 오후 2시 30분 충청도청에서 충청북도, 진천군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이사, 이시중 충청도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이번 신규 사업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충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동원시스템즈에 신규 사업 진행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확정 금액 700억 원에 추가 검토 금액 300억 원을 더해 최대 1,000억 원 규모다. 신규 공장동은 증설이 완료된 생산라인부터 가동을 시작해 2023년 시제품 생산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투자를 완료해 국내 최대 생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분리막 등의 소재를 돌돌 감은 ‘젤리롤(Jelly roll)’ 형태의 전극이나 소재를 층층이 쌓은 ‘스태킹(Stacking)’ 형태의 전극을 셀 파우치로 감싼 모양의 2차전지다. 일반적인 원통형 캔·각형 캔 배터리와 비교해 내부 공간효율성이 높아서 에너지 보관 밀도가 크고, 외관이 단단하지 않아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어 전기차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알맞은 모양으로 제작할 수 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최근 전기차시장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전문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파우치형 배터리 점유율은 2018년 14.4%에서 2020년 27.8%로 약 2배가량 상승했다.

셀 파우치는 재료가 되는 알루미늄필름의 품질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셀 파우치용 알루미늄

필름시장은 일본의 제조기업 2개사가 점유율 90% 이상으로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설비·재료·공정·품질 등 모든 분야에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신규 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셀 파우치용 알루미늄 필름은 알루미늄을 미크론(1mm의 1/1000) 단위의 균일한 두께로 매우 얇게 가공하는 동시에 미세한 흠집이나



▲ 왼쪽부터 송기섭 진천군수,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이사, 이시중 충청도지사가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멍이 하나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품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 하나가 배터리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파우치 필름 불량은 생명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셀 파우치용 알루미늄필름은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생산이 어렵다.

동원시스템즈는 40여 년의 종합 포장재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셀 파우치 제조분야에 진출하게 됐다. 자체 생산한 알루미늄필름으로 셀 파우치까지 일괄 제조가 가능한 기업으로서 품질 높은 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동원시스템즈는 유리병, 캔, 알루미늄, PET, 종이, 산업용 필름 등 식품, 음료,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기기를 비롯해 거의 모든 소비재의 포장재를 생산해 온 국내 1등 종합 포장재기업이다. 특히 알루미늄 제품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2차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박 생산 라인 증설과 2차전지용 캔 제조업체 인수 합병을 통해 2차전지 부품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이번 셀 파우치 제조분야 진출을 통해 명실공히 국내 최고 수준의 2차전지 전문 최첨단 종합소재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당사는 지난해 2차전지 부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한 이후 당초 계획대로 생산 가능 품목을 순서대로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향후 국내를 넘어 글로벌 2차전지 부품시장에서도 한국 최첨단 소재 기술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美 오리진과 100% 바이오 플라스틱 양산

폐목재, 폐지 등 천연물 원료로 높은 물성의 플라스틱 개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미국 오리진 머티리얼스사와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석유화학 PET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플라스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11월 10일 밝혔다.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폐목재·폐지 등의 버려지는 천연물질로부터 화학원료를 만들어내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보유한 고분자 플라스틱의 제조·가공 역량과 결합할 경우 기존 천연물질의 단점을 대폭 보강해 석유화학 기반 PET보다 높은 수준의 물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100% 바이오 원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PET에 비해 낮은 물성으로 빨대 등 일회용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한계가 있어 기존 PET시장을 대체하기에 부족했다.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개발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는 이러한 단점을 모두 보완한 것으로 석유화학 PET를 대체하는 수준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제품 양산이 본격화 될 경우 기존 석유화학 플라스틱 대비 50% 이상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효과와 함께 가격 경쟁력도 갖춘 제품으로 전체 플라스틱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10년 넘게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매진해 온 나스닥 상장 회사다. 버려지는 목재나 종이



로부터 플라스틱용 화학원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네슬레·펍시 등 글로벌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오리진 머티리얼스의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를 이용해 생산에 나설 제품은 바이오 PET와 PEF(폴리에틸렌 푸라노에이트) 제품이다. 특히 바이오 원료 기반의 PEF는 아직까지 상용화 되지 않은 최첨단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PET에 비해 높은 강성과 내열성·밀폐성 등 월등한 제품 경쟁력을 지녀 코오롱만의 독자기술로 필름, 섬유, 자동차 부품 분야로도 용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그동안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 원료로도 높은 수준의 고분자 플라스틱 합성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2025년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휴와 관련해 오리진 머티리얼스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 원료로도 높은 수준의 고분자 플라스틱 합성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글로벌 선도기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확장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라며 “폐플라스틱 재생에 머무르지 않고 탄소 감축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을 통해 ESG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미 에너지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을 PET 대비 약 30~40% 줄일 수 있는 rPET(재활용 플라스틱), 6개월 이내 90%이상 자연분해가 가능한 PBAT(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rPET 기술의 경우 스위스 기업 gr3n사와의 제휴를 비롯해 재향군인회와 군용 폐플라스틱 재활용, 경기도 고양시와 폐섬유류 재생 등 글로벌기업 및 단체, 지자체 등과 친환경 플라스틱사업 확장을 위한 협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롯데알미늄

2021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사례 공모 결과 발표

업무개선 사례,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 사례 등

롯데알미늄(대표이사 조현철)은 11월 4일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사례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자율준수자에 대한 시상을 했다.

동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실천동기를 부여하고,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례공모는 업무개선 사례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와의 상생협력 사례, 동료의 공정문화 확산 모범



▲ 롯데알미늄(대표이사 조현철)은 11월 4일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사례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자율준수자에 대한 시상을 했다.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례 등 폭 넓은 주제를 대상으로 사례를 모집하였고, 이에 맞추어 지난 시상보다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포장기술팀 변철웅 사원, 우수상 구매팀 김현진 사원, 장려상 구매팀 이승환 사원 등이 수상했다.

롯데알미늄 관계자는 “이번 사례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

다”며 “내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례 공모에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오리온

2021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253억, 영업이익 1142억 기록

오리온그룹(회장 담철근)은 사업회사 오리온이 2021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253억 원, 영업이익 1,142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내부 효율화 및 수익 중심 경영을 통해 국내외 전 법인들이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7%, 영업이익은 5.9% 증가했다.

한국 법인은 매출이 3.3% 성장한 2,007억 원, 영업이익은 2.2% 성장한 293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가격을 동결했고 더불어 추석 특별상여금 지급 등 비경상적 경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제품 생산, 채널 내 재고관리 등 데이터 경영이 체질화되고 글로벌 통합 구매를 통한 효율적 원가관리를 통해 8년간의 가격 동결 및 원자재 가격 인상 속에서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간편대용식 ‘마켓오네이처’ 브랜드와 단백질 강화 제품 중심의 ‘닥터유’ 브랜드가 각각 32%, 38% 고성장하며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꼬북칩’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과삭칩’, ‘오!구마’, ‘고추칩’ 등 스낵 신제품

이 연말에 히트하며 성장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4분기에는 파이, 스낵, 초콜릿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제형과 맛의 신제품들을 출시해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성장세인 닥터유와 마켓오네이처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국 법인 매출액은 4.3% 성장한 3,196억 원, 영업이익은 19% 성장한 696억 원을 기록했다. ‘오!구마’, ‘스윙칩 한정판’, ‘초코잔 고래밥’ 등 기존 메가브랜드(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 성장을 도모했다. 올해 대용식 시장에 진출한 양산빵 ‘송송 로우설탕가오’의 편의점 및 TT채널 전용 제품을 선보이며 판매 채널 확대에 주력했다. 영업이익은 쇼트닝, 유지류 등 주요 원재료비 인상, 지난해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정부보조금 혜택으로 인한 역기저효과 영향이 있었음에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올해 진행했던 영업효율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고정비가 줄어드는 등 3분기부터 이익 개선으로 이어져 향후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분기에는 ‘춘절’ 성수기를 대비해 핵심 카테고리인 파이와 스낵의 선물용 기획 제품을 출시하고 제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매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제조원가 유지를 위한 내부 노력도 한층 강화해 외부 환경 압박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베트남 법인은 매출액이 5.1% 성장한 785억 원, 영업이익은 24.2% 감소한 127억 원을 기록했다. 식사대용이 가능한 파이, 양산빵 카테고리 수요가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건강과 영양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일며 쌀과자 ‘안(An)’이 현지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하며 매출을 뒷받침했다. 다만 팜오일, 설탕 등 주요 원재료 단가 및 수출 운임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도시 중심의 강력한 지역봉쇄 조치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일시적인 비용 상승 영향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불가피하게 감소했다.

4분기에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 따른 ‘위드 코로나’ 실시로 소비 수요가 정상 회복될 것으로 예상, 매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장 전략을 펼치고 ‘구떼 핫’, ‘봄젤리’, ‘썬봉 에그요크’ 등 하반기에 출시한 신제품 분포를 확대하는 등 판매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최대 명절인 ‘땃’을 앞두고 선물용 패키지 출시 및 판매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매대 점유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러시아 법인은 라인업 확장에 성공한 초코파이의 인기 지속 및 비스킷 제품군 확장 성공으로 28.7% 성장한 306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오리지널 및 잼을 활용한 초코파이가 고무 인기를 끌며 파이 카테고리의 매출이 현지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글로벌 원재료 가격 인상, 판매량 증가에 따른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에 무뎠다. 가치 하락이 더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한 38억 원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비스킷 제품의 유통채널 확대와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매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러시아 신공장 건설을 착실히 진행해 제2의 성장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 높은 신제품 출시, 효율 및 수익 중심 경영 체질화를 통해 국내외에서 성장세를 유지했다”며 “4분기에는 중국과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춘절’, ‘땃’ 성수기를 대비해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카테고리 개척 등 시장 확대를 통해 매출과 이익의 동반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잉크업계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

공급난, 탄소저감책, 물류난 등 복합적 요인

잉크업체들이 원부자재 공급난으로 인한 가격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발 석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 전력난으로 가동에 차질을 빚어 우레탄 수지 1차 원료인 포리올 AA, NPG, 1.4BD 등이 폭등하고 있다. 첨가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 원재료 부족 및 가격상승, 운임비 상승, 환율 상승 등으로 심각한 제품가 인상과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안료는 유색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주요 원료 생산국인 중국의 전력난, 탄소저감정책 리스크로 기초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 여파로 공급부족과 가격인상 상황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으로 국내업체들은 공장 조업 단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색의 경우는 기초 원료인 티탄광석의 급등, 생산 차질, 물류이동 차질 등으로 매분기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며 이는 202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용제는 미국, 중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화학공장의 설비 보수, 공장 가동 중단 및 정상가동 지연, 중국 환경오염 규제로 인한 공장 가동 중지, 저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중단에 따른 대체품 가격 폭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제도 가격 급등, 중국의 탄소배출 강화에 따른 생산 감축으로 주요 원자재인 주석 도금 강판이 급등하며 2차례나 인상됐다.

잉크 및 접착제의 주요 원부자재는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8~27%의 가격이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말 대비 2021년 11월말 현재

15~25%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강남구 다회용기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배달앱-외식업계와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서울시 강남구 일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 판매할 때 소비자가 원하면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9일 오전 서울시청(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요기요 운영),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조인동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이성 자치구청장협의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강신봉 위대한상상 대표이사, 이준형 잇그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로 음식배달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증가함에 따라 배달·포장에 주로 쓰이는 1회용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강남구 일대 음식점 60여 곳이 참여하며, 배달앱인 '요기요'를 이용하여 다회용기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요기요' 앱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선택(이용료 1,000원)하면 1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다회용 가방에 배달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고 난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회용 가방에 부착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추면, 다회용기 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이후 다회용 가방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전문 세척업체가 회수하여 위생적으로 세척·살균 소독 하여 다시 음식점에 가져다준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 지역 내 100곳 이상의 음식점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보완하여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음식 배달·포장에 사용되는 1회용품 감량을 위해 제도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음식 배달·포장 시 1회용품(수저·포크 등) 무상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회용기보다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대한상상(배달앱 요기요 운영), 잇그린(다회용기 세척업체)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1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못 받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삼아 1Kg 대비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지표를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에 한해서만 인증이 유지된다.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된다. 방향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해서는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을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인다.

제품 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되며 ‘우수’ 등급에 인증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정부

분 감면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업 총 매출액 5억 원 미만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이 확대 신설(30~60억 원 미만, 30% 감면)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 2,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하여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소비기한

(use-by date)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의 시행시기(8년 이내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우유류로 정하고,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개정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용어(소비기한, 식품 유형 등)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치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유통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스틱연합회

제10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행사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 ‘자랑스런 산업인상’ 수상

플라스틱산업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10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11월 26일(금)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욱) 주관으로 개최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플라스틱산업의 날은

지난 2012년 연합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하였으며,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1개 회원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연합회가 주관하며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기관이 후원하고 있다, 연합회는 기념식을 통해 플라스틱산업인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공자를 포상하여 왔다.

올해는 자랑스런 산업인과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2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소규모 행사로 진행하였다.

제10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캐치프레이즈는 “연대와 협력, 그리고 미래”로 정했다. 캐치프레이즈는 전후방산업과 유관산업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역제를 위한 탄소중립 2050 이행에 대응하고 자원순환사회 이행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플라스틱업계의 의지를 담은 선언이며 약속이다.

이광옥 연합회장은 기념사에서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전후방산업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 밝히고 “뿌리산업인 플라스틱산업이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영예의 대상인 ‘자랑스런 플라스틱산업인賞’은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가 역대 여덟 번째로 수상했다. 최봉규 대표이사는 광주전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한국플라스틱연합회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제12대 회장을 거쳐 현재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천일은 광주광역시 평동산단에 위치한 식품포장지 제조 전문업체로 식품 포장용 기능성 포장지 기술 개발을 통해 포장지의 기능 확대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대통령 표창은 이영철 창신리빙 대표가 수상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강복실 (주)동아비닐산업 대표이사 ▲김정태 (주)케이아이피 대표이사 ▲박실용 효성화학 대표 ▲오진석 혜성화학 대표 ▲은성진 (주)와이디티 대표이사 ▲이승현 경승산업 대표 ▲최재우 화인케미컬 대표 등 7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은 ▲고일석 한국편의시설산업(주) 대표이사 ▲손무수 우전화학 대표 ▲류두현 영원케미칼 대표 ▲최규동 성지산업사 대표 등 4명이, 조달청장 표창은 ▲박봉선 (주)서원 대표이사 ▲오근성 케이유피피(주) 대표이사가,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은 ▲공주열 대화수지공업(주) 이사, ▲김민성 성공을만드는(주)파이프뱅크 선임, ▲손신중 한국플라스틱시험원 연구원, ▲양해영 부산프라스틱(조) 과장, ▲이명숙 (주)제일화학 대표이사 등 5명이, 연합회장 표창은 ▲김용주 (주)인슈코아 본부장, ▲박영복 더리더 편집부장, ▲신원석 KP한석유화(주) 부장, ▲최무근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장 등 4명이 수상했다.

연합회장 공로패는 신홍순 화학·바이오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총장이 받았다.



▲ 플라스틱산업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10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11월 26일(금)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특별행사로 탄소중립 2050 선언에 따른 정부의 NDC 발표에 즈음하여 산업연구원 이상원 박사의 ‘탄소중립 2050 정부정책 및 플라스틱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이상원 박사는 미국 테네시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제1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키, 바이오플라스틱’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은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키, 바이오플라스틱’을 캐치프레이즈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11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제1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제1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는 ‘플라스틱 대체물질(바이오플라스틱)의 소재·부품·장비의 기반구축을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바이오순환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열린 행사로, 정부 및 국회,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업 및 수요기업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연구소·대학 및 산업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의 R&D 기술 동향, 제품 개발현황 및 사업화 사례, 화이트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제 및 제도개선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은 11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제1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생분해성 원료, 컴파운딩 및 제품 제조업체들의 자사 기술력 및 주요제품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도 운영돼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제1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바이오플라스틱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국포장기술사회

장안대학교 융복합패키징과와 MOU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양성 위한 상호 교류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한영)는 장안대학교(총장 김태일)가 2022학년도에 신설하는 융복합패키징과와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원장 이한영) 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식에는 용복합패키징과 학과장 김서현 교수와 한국포장기술사회 및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이한영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국가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며 유기적 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포장기술사회 및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장안대학교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첨단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연구 활동과 지식 정보의 교환 및 위탁 교육을 통해 상호 발전적 산학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 기자재 및 실험·실습 기자재를 공동 활용해 교수 현장 연수와 학생 현장 실습에 협조해 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도모하기로 협약했다.

장안대학교 용복합패키징과 학과장 김서현 교수는 “2022학년도에 신설하는 용복합패키징과는 21세기 신산업 분야로 나서게 될 패키징 분야에서 현장의 지식과 기술 위주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최첨단 패키징 기술과 미래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에 이바지하는 인재 양성

목표에 가장 적합한 산학협력을 맺게 돼 큰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친환경 포장재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국포장기술사회 이한영 회장이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2021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위한 친환경 패키징’ 주제

환경 문제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는 포장재를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100여 개의 관련 기업과 정부, 학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화학사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참여하고 있는 ‘2021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Packaging) 포럼’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 패키징을 주제로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간 서울 광진구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2019년 포장재 등 폐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민·관·학이 그 해결을 위한 방법론과 실제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고, 당면 문제 해결방안과 상호 협력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했다.

이번 포럼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럼 기간 동안 약 100여개 기업, 정부기관, 학계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해 친환경 패키징 및 지속가능한 순



▲ 왼쪽부터 장안대학교 용복합패키징과 학과장 김서현 교수와 한국포장기술사회 및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이한영 회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제 구축을 위해 각자 추진 중인 사업 및 솔루션, 연구개발 결과 등에 대해 공유하고 활발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포럼에 참여한 기업과 정부, 학계는 생활형 폐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를 친환경으로 대체해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및 개인 위생을 위한 수요 증가로 대두된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 환경부 및 산하기관 등 정부 관심과 참여도 크게 늘었다.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축하 영상으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패키징 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 장관은 영상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려는 여러 기업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정부도 자원순환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폐자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은 축사를 통해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학이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또 들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친환경 포럼이 지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과 SK지오센트릭은 ESG 경영에서도 ‘환경(Environment)’ 영역에 방점을 찍고 경영활동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면서 정부 및 산업계·학계 리더들의 경험과 노력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일차에 ▲순환경제와 ESG 경영, ▲소비재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자원순환 활동,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솔루션, 2일차에 ▲ESG 경영과 패키징 재사용 활동, ▲친환경 패키징 표준과 활용, ▲환경 영향 및 바이오·제지 패키징산업 등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SK지오센트릭은 1일차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솔루션 세션을 주관했다. 동사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추진 전략을 비롯해 국내 기계적 재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대자동차 및 코카콜라 등은 각각 자동차·식품 업계에서의 플라스틱 재활용 동향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한편, 환경부는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화장품·물류·바이오·제지업계 국내외 대표 기업들은 각자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 활동과 자원순환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기관 및 학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며 관련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에 참석한 SK지오센트릭 나경수 사장은 “차별화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활용해 도시유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감과 동시에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11월 3일 위커텔 호텔에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운데)부터 조명래 前환경부 장관,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SK지오센트릭 나경수 사장의 모습.

SK케미칼

케미칼 리사이클 코폴리에스터 양산

화장품 용기 중심으로 글로벌 포장시장에 친환경 바람

SK케미칼(대표이사 전광현 사장)은 세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케미칼 리사이클) 기술을 적용한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ECOTRIA) CR’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9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 ‘K2019’에서 물리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에코트리아 R’을 선보인 이후 2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케미칼 리사이클(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케미칼 리사이클 기술 기반으로 플라스틱 양산 체계를 구축한 사례는 없다. 상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페플라스틱 수급망이 확보되어야 하고 분해공정을 통해 원하는 화학물질을 분리·정제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은 세계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될 것을 예측하여 3년 전부터 케미칼 리사이클 솔루션 개발에 집중했다. 특히 안정적인 케미칼 리사이

클 원료 확보가 관건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의 페플라스틱 재활용 업체 슈예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에 힘썼다. 이를 통해 2만 톤의 원료를 확보하고 대량 양산 체계를 갖췄다.

‘에코트리아 CR’ 출시에 따라 ▲케미칼 리사이클 원료를 사용한 ‘에코트리아 CR’ ▲재활용 페트 원료(PCR)를 사용한 ‘에코트리아 R’ ▲소비자가 사용 후 PET로 재활용이 가능한 ‘클라로(Claro)’로 업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패키징 라인업인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Sustainable Packaging Solution, 이하 SPS)이 완성됐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은 유럽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게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로레알, 에스티로더, 샤넬 등 글로벌 화장품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및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로레알(L’Oreal)은 2025년까지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 또는 바이오 기반 원료를 사용한 포장재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0% 전환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에코트리아 CR’의 투명성과 외관, 내화학적 등의 뛰어난 물성과 친환경성을 앞세워 국내외 화장품 용기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는 1만 톤 이상의 케미칼 리사이클 제품 ‘에코트리아 CR’을 생산하고 국내외 주요 화장품 브랜드 오너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중국(상해), 유럽(모나코)에서 케미칼 리사이클 제품 ‘에코트리아 CR’을 소개하는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했다.

중국에서는 존슨앤존슨, 에스티로더, 로레알 등의 화장품 업체를 비롯하여 포장재 및 원자재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 패키징 세미나



▲ SK케미칼이 화장품 용기 시장에 케미칼 리사이클 코폴리에스터를 본격적으로 양산, 공급한다. 울산공장 케미칼 리사이클 코폴리에스터 양산 성공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유럽 화장품 전시회 룩스팩 모나코 (LuxePack Monaco 2021)에서는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을 소개하고 텍센(Texen)과 공동개발한 케미칼 리사이클 화장품 용기를 전시, 샤넬, 불가리 등의 화장품 업체의 주목을 받았다.

SK케미칼은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SPS) 소재 판매 비율을 2025년 50%, 2030년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케미칼 리사이클 제품 ‘에코트리아 CR’은 신제품과 동일한 물성 구현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아 화장품 용기 이외에 식품포장, 가전, 생활용품 시장에서 ‘에코트리아 CR’ 니즈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SK케미칼 김응수 코폴리에스터 사업부장은 “세계 최초로 케미칼 리사이클 코폴리에스터 양산에 성공함에 따라 급증하는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산 제품에 대한 지속적 품질 개선, 용도 개발을 통해 타사와의 격차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케미칼

PET병 자원순환 협약 체결

수거한 PET병으로 고품질 재생 PET 생산

SK케미칼(대표이사 전광현 사장)은 화성시 동탄 출장소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현석 SK케미칼 그린케미칼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을 활용한 투명 PET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와 경기도주식회사는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배달특급

다회용 배달용기사업의 회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 가정 내 투명 PET병을 수거해 SK케미칼에 제공한다. SK케미칼은 이를 재생PET(r-PET)로 가공하여 코폴리에스터 생산원료로 사용하거나 가방, 의류, 용기 등과 같은 재활용 제품 생산업체에 재생PET(r-PET)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다회용 배달·포장 음식용기 사용문화 조성을 위해 환경부-화성시-경기도주식회사-한국외식업중앙회-녹색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부터 동탄 신도시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앱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주문 고객에 한해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이후 수거·세척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이번 협력을 통해 고품질의 페트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루 평균 수백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지지만, 수거·선별·재활용 과정에서 오염 등의 이유로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SK케미칼과 화성시는 배달특급 앱을 활용해 22년 100톤의 양질의 투명 PET병을 수거하고 23년에는 경기도 타 지자체 확대해 1,000톤 이상의 투명 PET병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된 PET병은 고품질 재생PET(r-PET)로 재활용되어 국내 주요 화



▲ SK케미칼이 화성시, 경기도주식회사와 손잡고 PET병 리사이클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장품 패키징 및 리사이클링 섬유 생산을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고품질 재생PET를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페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거와 선별 단계는 중요한 밸류체인(Value Chain)의 하나다”라며 “화성시에 이어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PET병 리사이클 생태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케미칼은 플라스틱 리사이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외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케미칼은 지난 8월 제주개발공사와 고품질의 삼다수 투명 PET병 수거 및 케미칼 리사이클 PET(CR PET) 생수병을 공동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케미칼

재활용 편의성 높인 PET병 수축라벨

PET병과 라벨이 쉽게 분리돼 재활용 용이

롯데케미칼이 PET병 재활용 용이성 최우수 등급을 만족하는 PET병 수축라벨을 개발했다.

롯데케미칼에서 원료 개발 및 가공 기술 등을 지원하고 롯데알미늄은 인쇄, 라벨 제조 및 평가를, 동일화학공업에서는 필름 제조 생산 등을 진행했다. 3사는 작년부턴 수축라벨 공동개발을 진행하여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수축 다층 폴리올레핀 라벨 및 원료 제조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가공인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

PET병 라벨은 접착식과 수축라벨 2종류가 사용된다. 이번 개발된 PET병 수축라벨은 비접착식, 비중 1미만으로 페PET병 분쇄 후 세척과정에서 PET병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수축라벨은 물 위로 뜨면서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수축라벨 대비 강도가 낮아 라벨 절취선 분리가 쉽고 PET병 재활용 공정이 용이해지면서 PET병 재활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ET병에는 식품 정보를 위해 라벨이 사용되고 있으며 분리가 되지 않으면 PET병 재활용이 쉽지 않다. 최근 무라벨 생수가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관리법상 식품 성분 표기가 필요해 일부 생수 제품 외에는 라벨을 사용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수축라벨을 통해 PET병의 재활용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트너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제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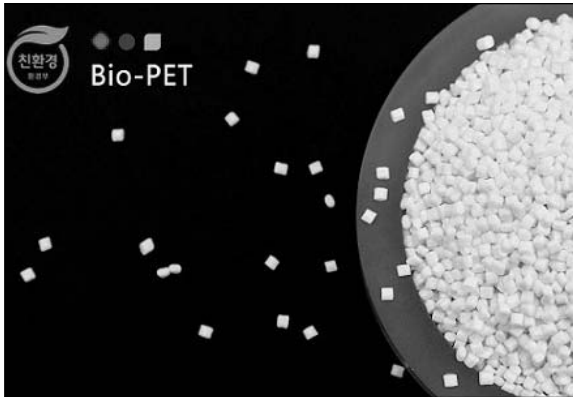
롯데케미칼

최초 바이오PET 환경표지 인증 획득

기존 PET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 28% 저감

롯데케미칼(김교현 대표)의 바이오PET(Bio-PET) 소재가 친환경원료 사용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PET 생산기업 중 최초로 환경표지 인증(EL727)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환경표지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소비 절약 및 배출물 감소 등 환경성 개선이 인정되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부 공인 인증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비교 및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롯데케미칼(김교현 대표)의 바이오PET(Bio-PET) 소재가 친환경원료 사용 및 온실가스 저감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PET 생산기업 중 최초로 환경표지 인증(EL727)을 획득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롯데케미칼 바이오PET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Bio-MEG(Mono-ethylene glycol)를 원료로 사용하여 석유화학 원료 기반의 기존 PET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8%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뛰어난 가공성과 열안정성, 투명성 등 기존 PET와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100%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제품이다.

2011년 국내 최초로 롯데케미칼이 생산한 바이오PET는 전 세계에서 태국 Indorama Ventures, 대만 Far Eastern과 함께 3개 업체만이 생산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PET 소재로는 국내 최초로 환경성적표지 인증(EM702)을 획득했으며, 이번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친환경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롯데제과

꼬깔콘, 디자인 리뉴얼 시행

9년 만에 패키지 디자인 변경

롯데제과 간판 스낵 꼬깔콘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디자인 리뉴얼을 시행했다.



▲ 롯데제과 간판 스낵 꼬깔콘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디자인 리뉴얼을 시행했다.

이번 디자인 리뉴얼은 전반적인 색상과 로고 빼고는 다 바뀌었다고 할 만큼 변화 폭이 크다.

우선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줄여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살렸다.

또한 제품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삼각뿔 모양에 착안하여 역삼각형 형태의 흰색 라벨을 로고 바탕에 적용하여 꼬깔콘만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자 했다.

맛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던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한 것 또한 꼬깔콘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제품의 전통성을 강조하는 'Since 1983' 문구를 제품 로고 위에 표기하고 '소리까지 맛있다!'라는 제품 슬로건을 아래로 내리며 변화를 주는 등 이번 리뉴얼을 통해 롯데제과는 꼬깔콘의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전부 바꿨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의 목적은 MZ세대 소비자층의 디자인 호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장수 브랜드 특성상 소비자들에게 매년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고자 하는데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것은 9년만이다”라며 시행 배경을 밝혔다.